

# ICCAT eBCD, CDS, IMM 작업반 회의 참석 결과

## □ 개요

- (일시/장소) '6.5(월)~6.9(금) 09:00~18:00 / 화상회의
- (참석자) EU, 일본, 미국, 영국, 모로코, 세네갈, 한국 등 약 70명
- (주요내용) eBCD\* 시스템, CDS, 감시 감독 통제 조치

\* 참다랑어 전자어획증명(electronic **B**luefin tuna **C**atch **D**ocumentation) : 참다랑어 조업, 유통 전과정을 추적

\*\* 어획증명제도(Catch **D**ocumentation **S**cheme) : 기국이 자국 선박에 의한 어획물이 보존관리조치 등 관련 규범을 준수하여 어획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인증하는 제도

## □ 참다랑어 전자적 어획증명제도(eBCD) 작업반

### 1. 전재신고서와 eBCD 시스템 연결

#### ○ 논의내용

- 권고 22-08 92항\*을 이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본은 eBCD에만 전재신고서 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미국과 모로코는 전재신고서에도 eBCD번호가 표시되는 것을 선호

\* 전재신고서 내 데이터에 대한 교차 검증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전재신고서는 eBCD와 연결되어야 한다.

- 2월 작업반 회의 합의사항(전재신고서를 pdf로 eBCD에 등록하는 기능 추가)을 eBCD 운영업체가 계속 작업하도록 하고 추후 추가 논의하기로 함

### 2. 가공 활동 정보의 eBCD 입력

#### ○ 논의내용

- 일본은 축양장 또는 통발로부터 가공 목적으로 향하는 어류의 가공에

관한 정보가 부재하여 수입하는 CPC의 확인 작업에 어려움이 있음을 제기하고 가공 활동 정보를 eBCD에 입력(가공선 선장)하는 것을 제안

- 모로코는 가공 활동은 수확하는 CPC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므로 본 섹션에 대한 수확 당국의 인증은 요구되지 않고 기존처럼 수출 정보에 대해서만 당국의 인증이 요구됨을 명시할 것을 요청

## □ 어획증명제도(CDS) 작업반

### 1. 주요 쟁점

#### ○ CDS 목적이 무엇인가?

- 1) IUU 어획물 유통 방지를 위한 추적 가능성(traceability) 제고
- 2) 어업 관리 향상을 위한 과학 데이터 제공

#### ○ 대상 어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일본은 모든 ICCAT 주요 어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

\* 눈다랑어, 황다랑어, 가다랑어, 날개다랑어, 황새치

- 일부 CPC들은 현재 SDP를 시행 중인 눈다랑어 · 황새치를 우선순위 어종으로 하는 것을 제안

#### ○ 어업 기반(Fishery-Based) 또는 교역 기반(Trade-Based)으로 할 것인가?

- 어업 기반 CDS는 국제 및 국내 거래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교역 기반 CDS는 국제 거래만을 대상으로 함(전자 예: 참다랑어 eBCD, 후자 예: 눈다랑어 · 황새치 SDP)
- 일본은 교역 기반 CDS는 어획량 검증 수단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어업 기반 CDS가 되어야 함을 주장

#### ○ CDS 운영 및 설계상 어려움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1) 눈다랑어 SDP는 현재 냉동 어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점
- 2) 가공 CPC들은 통조림 공장에서 선망 어획물의 어종별 어획량을 어떻게 집계하고 있는가?
- 3) CDS는 여러 관계자들(어업자, 판매자, 수출자, 공무원 등)이 적시에 조치 (정보 입력, 검증, 인증 등)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바, 개도국들의 경우 이행에 어려움 가능성
- 4) eBCD에서는 어획량이 적을 경우, 조업일지 또는 판매기록을 임시 BCD로 사용 가능함.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해 eBCD에서의 이러한 면제와 같은 접근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앙 당국의 업무를 지역 당국 또는 상공회의소에 위임하는 것을 고려 필요

#### ○ eBCD 확대 적용 가능성

- 전자적 CDS의 장점을 고려할 때, 영세 어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ICCAT CDS를 전자적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
- 참다랑어 외 어종들은 축양이 없으므로 eBCD보다 단순한 시스템 가능. eBCD 확대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eBCD 기술작업반과 협의 필요

#### ○ 개도국 역량 지원

- CDS를 검증하고 인증하기 위해서 CPC들은 어류 유통 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것이 요구되는바, 개도국들의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eBCD를 운영하고 있는 개도국들의 경험 청취 필요

#### ○ 타 RFMO 및 국내 시스템과 조화

- CDS를 개발 중인 타 RFMO들(IOTC 등)과 협업 필요
- ICCAT CDS가 자체적으로 CDS를 운영하는 CPC들(EU 등)의 CDS 기준을 충족할 경우, ICCAT CDS를 타어종으로 확장할 유인이 증가할 것

## 2. 일본 제안서

### ○ 주요 내용

- '26년 연례회의에 CDS에 관한 권고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공식적인 어획증명제도 작업반을 수립(매년 IMM 회의 전후로 회의 개최)
- 작업반은 CDS 확장을 목표로 대상어종, 상품유형, 제도형태를 논의
- 작업반은 타기구 국내 CDS와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CDS의 운영적, 기술적 측면들을 논의(CDS 이행 관련 실제적, 기술적 어려움 등)
- 작업반은 CDS 형태를 전자적 형태로 할 것인지와 기존의 eBCD를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을 수립할 것인지를 결정
- 작업반은 개도국의 확장된 CDS 이행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고려

## □ 통합감시조치(IMM) 작업반

### 1. 국제공동검색제도

#### ○ 논의내용

- ICCAT 전수역에 적용되는 승선검색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캐나다 제안서로서 작년 연례회의에서 개도국들의 반대로 미채택
- 개도국들은 공해상에서 선박에 대한 관할권은 기국에게 있고 IUU를 대응하기 위한 다른 협정, 제도들이 있고, 본 제도는 승선검색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들에게 공평하지 못함을 제기
- 캐나다, 미국, EU는 해양법협약은 기국 관할권 면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고, IUU의 심각성에 비추어 본 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검색관 파견, 개도국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역량개발이 가능함을 언급

## 2. 부수어획 선박 등록

### ○ 논의내용

- 미국은 등록되지 않은 선박에 의한 부수어획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각 어종별 미등록 선박에 의한 부수어획 허용량이 과다하여, 적법한 어획여부를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정기적으로 부수어획하는 선박을 등록하고 미등록 선박에 의한 부수어획 허용량을 감축할 것을 제안
- 일본은 정기적으로 부수어획하는 선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질문
- EU는 각 어종별 조업선 목록은 이미 수립되어 있고 20미터 미만 선박도 등록 가능하므로 조업선 등록이 면제되는 부수어획 허용량을 각 어종별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핵심임을 언급
- 의장은 각 패널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언급

## 3. 참다랑어 단기 저장 시범사업

### ○ 논의내용

- 노르웨이는 자국 참다랑어 시장 규모가 작아 수확된 참다랑어가 시장에 일시에 출회될 경우 판매되지 않고 폐기되는 참다랑어가 많은 상황을 제기하고, 참다랑어를 활어 상태로 단기간 저장하면서 시장 출회를 조절하는 시범사업 수행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
- EU와 모로코는 본 사업 중 축양과 상이한 요소들\*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본 사업이 eBCD에 대한 면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축양 규정의 목적에 반하게 진행이 되어서는 안됨을 언급

\* 운반 가두리에서 어류가 수확될 수 있는 점, 조업선(선망선)이 견인선으로도 사용되는 점, 조업선에서 운반 가두리로 어류 이전 시 스테레오 카메라가 미사용되는 점

## 4. 참다랑어 인공 부화 시범사업

### ○ 논의내용

- 카보베르데는 참다랑어 알을 수입하여 인공 부화시키는 시범사업 수행을 제안
- 일본은 4가지 질문을 제기 : 1) 22-08 개정 필요성이 있는가? 2) 인공 부화된 참다랑어를 야생 참다랑어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3) 인공 부화 사업하는 CPC는 축양계획을 제출해야 하는가? 4) eBCD 적용대상이 되는가?
- 일본, EU, 미국은 인공 부화 참다랑어에 대한 추적가능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고, 축양계획 제출 및 eBCD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함을 언급